

교육단상칼럼

대교협만이 교육을 정상화시킬 수 있다

정진곤 | 한양대 교육학과 교수, 전 대통령실 교육과학 문화수석

학생들이 신음하고 있다

중·고등학교 학생들에게 왜 공부를 하느냐고 물어보면 대학가기 위해서라고 대답한다. 우리나라의 대학진학률은 80%대이며, 거의 모든 학생들이 입시준비를 하고 있다. 학생들은 해 뜨기 전에 등교하여 밤 늦게까지 공부하고, 학교공부를 마친 후에는 학원으로 가거나 집에서 또 공부한다. 운동할 시간도 없고, 친구를 만나 이야기할 시간도 아껴야만 한다. 하루 종일 책상에 앉아서 교과서와 참고서를 가지고 씨름을 한다.

대학입학여부를 좌우하는 내신시험과 수능이 교과서를 토대로 출제되기 때문에 학생들은 교과서에 매여 폭넓은 독서는 엄두도 못 낸다. 두 세 문제만 실수도 자신이 원하는 대학에 진학할 수 없기 때문에 비슷한 문제지를 수없이 풀고, 또 푼다. 미국에서 오랫동안 학교를 다녀서 영어를 잘 할 줄 아는 학생도 수능시험을 잘 보기 위해서는 한국의 고등학교 영어 교과서 범위와 수준에 맞추어 문법을 공부해야 한다. 수학도 객관식으로 출제되기 때문에 문제에 대한



다양한 해법을 깊이 있게 탐색하기 보다는 빨리 정답을 찾아내야만 한다. 다른 과목들도 마찬가지이다.

밤잠도 줄여가면서 열심히 공부하여 대학에 입학한 학생들은 과연 창조와 융합이 강조되는 세계에서 국제적 경쟁력을 갖춘 우수한 인재들인가? 어떤 대학에서는 대학공부를 따라오지 못하는 학생들을 위해 오래전부터 특별반을 편성하여 운영하고 있다. 고등학교 때 배워야 했던 기초적인 수학, 과학뿐만 아니라 글 쓰기의 기본도 배우지 못한 학생들이 대학 강의실에 앉아 있다. 남을 위해 봉사하거나 어렵고 힘든 사람들을 보살피는 본적이

없는 학생들은 대학에 와서도 오직 자기 자신의 출세나 돈벌이밖에는 관심이 없다.

대입제도를 개선해야 한다

대입입시제도를 개혁하지 않는 한 이와 같은 사태를 해결할 수 없다. 이 말을 했을 때 어디에선가 “또 입시제도를 바꾸자는 말인가”라는 항의가 들려온다. 1945년 해방이후 이제까지 대학입시는 크게 13번이나 바뀌었지만 대체로 대학별 본고사에서 대학수학능력시험과 같이 전국단위의 시험으로 바뀌었을 뿐, 단 한 번의 시험성적만으로 학생들을 선발하는 방식은 60여 년 동안 큰 변화가 없었다. 최근 수시의 비율이 높아지고 입시가 다양화되고 있지만 학생들의 입장에서는 나아지는 것이 없다. 이러한 현실에서 학생들은 고등학교에 다니는 동안 대학입학시험 문제풀이에 매달릴 수밖에 없다.

학생들이 중고등학교에 다니는 동안 자신들이 하고 싶은 공부를 하고, 읽고 싶은 책도 읽고, 운동도 하고, 예술 활동도 하고, 다른 사람을 위한 봉사활동도 하면서 자신의 특기와 적성을 살릴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단 한 번의 시험이 아니라, 고등학교 때 공부하고, 활동한 과정과 결과를 토대로 대학에 진학할 수는 없을까?

대교협이 할 수 있다

대입입시에 관한 권한을 위임 받은 대학교육협의회만이 이 일을 할 수 있다. 대학교육협의회에 고교와 대학

당국자간의 가칭 ‘고교-대학협력위원회’ 등을 구성하고, 고등학교교육을 정상화하고, 대학교육의 적격자를 선발할 수 있는 새로운 형태의 대입전형제도를 구축해야 한다. 대학과 고등학교 당국자가 함께 만나 대학입시를 어떤 방향으로 개선해야 이러한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할 수 있을 것인가를 서로 협의하고, 연구하고, 실험하여 합리적인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 미국도 1920년까지만 해도 현재 우리나라와 같은 암기위주의 입시제도 때문에 고등학생들이 많은 고통을 겪었지만, 1930년대에 고교와 대학당국자들이 함께 만나 7년여 동안의 연구와 실험을 거쳐 오늘날과 같은 안정적인 대입제도를 정착시켜 나갔다.

대한민국의 학생들과 학부모들 가운데 누구도 대학입시로부터 자유로울 수 없다. 대학에 입학하기 위해서는 대입제도가 요구하는 방식대로 암기위주의 공부에 매달릴 수밖에 없다. 법률적으로 대학입시제도 개선의 권한을 소유한 대학교육협의회만이 오늘날 암기위주의 공부에 신음하고 있는 우리나라의 고등학교학생들을 치유해주고, 창의력과 인성을 함께 갖춘 바람직한 인재를 선발할 수 있는 새로운 제도를 만들어 낼 수 있다.

서울대 교육학과와 대학원을 거쳐 미국 일리노이대학교 교육정책학과에서 교육철학박사학위(1986)를 받았다. 한국교육정책학회장, 한국다문화교육학회장과 대통령실 교육과학문화수석을 지냈다. 현재 한양대학교 교육학과 교수이다.
